

개화기 여성 가사에 나타난 여성 의식 고찰

최정아*

〈차례〉

1. 서론: 근대적 여성 주체의 정립 문제
2. 국민으로 호명된 여성과 여성의 시대 읽기
3. 전통(가족)과 근대(국가)의 경계에 선 여성의 위치 찾기
4. 결론

〈국문초록〉

여성가사는 지배양식인 남성가사를 모방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서사로 내면화, 융성시키는 과정에서 시대 사회적인 변화를 담지하고 다른 문학 갈래와도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여성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독자성을 키워나갔다. 일레인 쇼왈터Elain Showalter는 『그들만의 문학A Literature of Their Own』(1977)에서 지배전통의 지배적 양식을 모방하고 내면화시키던 단계를 거쳐 여성들만의 문학공간을 창출해나가는 여성적 자기서사의 특징을 주목한 바 있다. 여성 가사는 바로 이러한 여성적 자기서사의 구현물로서 생각될 수 있다. 특히 낭독과 필사로 이어지는 향유 방식과 전승의 과정은 다기한 변이체들을 낳으며 고정된 텍스트 분석의 틀을 벗어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여성 텍스트의 외연을 넓혀주는 동시에 텍스트 자체의 다중적인 목소리들에 주목하게 한다. 특히 계녀가류 여성가사는 유교적 자장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사

소리들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관계적인 성향을 분명히 담지한 텍스트의 확장과 소통의 방식은 때로 남성적인 윤리규범의 계도를 위한 방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이 지점에서 지배적인 목소리와 침묵하고 있는 목소리 혹은 불투명하게 드러나는 목소리들을 감지해낼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지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적 정체성을 모색해내는 과정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성 가사는 개화기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또다른 변모를 보이는 데, 형식적인 쇠퇴 혹은 소멸의 측면 보다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담아내는 지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조선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조선적 윤리의식을 계도하였던 계녀가류 여성 가사의 시대인식의 면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점들을 <경계사라>라는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개화기는 문명개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으며 그 중심에 여성을 두었다. 따라서 계몽의 대상은 여성이었으며 쏟아지는 여성담론들은 또하나의 여성 지침서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계녀가류 여성가사와 개화계몽류 여성 가사가 내용적 형식적 측면에서,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여성에게 익숙한 양식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나고 있다. 다만 여성의 자각은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실제 여성의 삶은 급격히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여성들은 전통과 근대의 경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점들을 <경계사라>와 다른 여성가사들을 통해 방증해보고자 했다. 이 시기 여성가사에 나타난 여성들의 정체성 모색의 과정은 신소설의 면면들, 이후 근대 여성 소설의 면면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이는 차후의 과제로서 남겨둔다.

핵심어 : 여성가사, 여성의 목소리, 여성담론, 경계사라, 여성 정체성

1. 서론: 근대적 여성 주체의 정립 문제

한국 근대 문학 연구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은 그간 남성 문학의 예외항 혹은 마이너스항으로 취급되어 온 여성 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나혜석을 비롯한 근대 초기 신여성들의 문학에 대한 가치 규명은 공적 담론의 장으로 뛰어들어 ‘인간 선언’을 한 여성 지식인들의 선각자적 위치를 밝히는 동시에 근대 담론의 시의성에 따라 배회하는 ‘근대/여성/문학’의 위상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문학의 근대성 담론에서 배제된 여성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한국 근대 문학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국 문학에서 여성성의 문제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탐색하는 논의로 수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여성 담론이 주를 이루게 된다. 여성성의 개념이 남성성(masculinity)의 대타항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sex)/사회적인 성(gender), 성욕(sexuality)의 의미항들이 지닌 유기성까지를 내포하게 될 때 전통적인 여성상을 전면 부정하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정면으로 대응하려고 한 이들의 움직임이 당대 뿐 아니라 현재적 시점에서조차 주목을 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신여성들의 텍스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선각자적 의식의 표명 이면에는 현실적인 괴리로 분절된 자기 검열의 목소리들이 감지되곤 한다. 이러한 간극들은 역으로 당대 표면화되지 못한 흩어진 목소리들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시대적 좌표를 읽어내는 보다 세밀한 독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여성 담론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여성 운동론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그 사회사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조선의 신여성 담론이 지닌 시대 사회적 전후 맥락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¹⁾

1)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른바 신여성 현상이 여성운동과 신중간층 여성의 등장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그 사회사적 배경에 따른 구

기존의 연구들이 이제껏 문학사에서 배제된 여성 문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근대적 여성 주체의 의미에 대한 입각점을 다진 것은 충분히 인정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여성들이 당대 소수 엘리트층으로서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울림을 지닐 수는 없었다는 점, 또한 이들의 행보가 결국은 당대의 근대성 담론의 장 안에서 결정되었다는 점등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여성해방론적인 층위만을 비근한 논조로 되풀이 한다거나 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과잉된 해석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이 지점에서 크게 두가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신여성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지닐 수 있었던 한편 중국에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저변의 움직임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신여성과 늘 대척점에 놓였던 구여성들의 의미 지평에 대한 것이다. 이는 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대척점에 놓인 전통과 근대의 기표들로서 구/신 여성이 담론적인 층위에 떠오르면서 출현하게된 ‘여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역사적 행위 주체(agent)로서의 여성들, 그 목소리들의 면면을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계몽적 합리성이 아닌 근대적 인식들에 대한 문제로 근대성 담론의 층위를 훑어간다면,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를 내포한 조선 근대화의 의미는 역으로 이러한 불안정한 여성 주체들의 위치 찾기 과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개화기 근대 담론의 다층적 면모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대 국가 형성 담론들과 연동되어 있는 이 시기 담론들은 지식 교육을 통한 참된 국민의 양성에 주목하면서 여성 교육에 목소리를 높인다.

체적 계기와 의미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신여성 운동의 출발지라 할 수 있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남성성/여성성의 문제라면, 비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근대 담론의 가장 하에서 특정의 의미체계를 생산한 기표(signifier)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수진, 『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2006, 188쪽).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 의해 안채 깊숙이 자리했던 여성들이 ‘여자계’로서 공적으로 호명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서구적 근대 문명화의 첫 과제로서 봉건적 구습 타파를 내세운 당대 담론의 중심에 여성이 들어설 수있었던 것은 ‘근대 문명 국가’와 대립되는 ‘조선의 미개한 (전통)가족’ 구도 속에 여성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 개량의 첫걸음으로 가정의 개량을 내세울 때 역시 여성이 그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된 여성이 참된 국민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젊은 남녀의 이상적인 결합을 통해 다음 세대 국민을 양육할 새로운 국민상을 창출해내려는 것, 이것이 남녀 동등론의 실질적인 결론이었으며 국민으로서 여성을 호명한 이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여성의 위치를 여전히 가정의 테두리 안에 두면서 신/구 여성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서구적 이상으로 사회적 변혁을 꿈꾸던 집 ‘밖’의 (신)여성들의 좌절감, 유교적 전통 교육을 받은 집 ‘안’의 (구)여성들의 박탈감은 바로 여성으로서 같은 문제를 지니고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일분자로 호명되었지만 여전히 제 목소리를 지닐 수 없었던 혹은 그 목소리에 값하는 사회적 역량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 여성들의 분열된 목소리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서구적 준거틀에 근거한 신여성들의 목소리를 논의의 초점으로 삼은 결과 구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키고 세대론적 가치론적 단절과 공백을 노정한 것은 근대성 담론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것이 개화기 여성 가사²⁾이다. 이 시

2) 여성가사는 여성을 중심으로 창작, 향유, 전승되어온 가사를 의미한다. 기존에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사의 명칭은 규방가사, 내방가사, 여성가사 등으로 다양하다. 서영숙(『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은 작가 또는 작가군이 여성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작품내적 화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고, 여성들에 의해 주로 향유되어온 가사까지 포함하면서 그 외연을 넓히면서 이를 ‘여성 가사’로서 총칭한다. 본고에서는 여성 가사의 창작, 전승의 특성상 서영숙의 논

기 여성 가사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여성의 소임과 시대인식을 강조하면서도 (경험적 자아로서의) 여성의 실존에 근거하고 있기에 전통과 근대를 대척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여성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 가사에서 드러난 ‘사람됨’의 자각은 같은 시기 남성 가사에서 보여지는 완고한 의식들과 대별되는 것이며, 이른바 서구 문명의 세례를 통해서 각성된 신여성들의 여성적 자의식과도 구별되는 내발적인 움직임이다. 이는 한국적 안채 문화가 지닌 여성적 유대의 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적 의식의 내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여성적 자기 서사의 구현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페미니즘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그들만의 문학』(1977)에서 일레인 쇼윌터는 지배 전통의 지배적인 양식을 모방하고 내면화시키던 단계를 거쳐 여성들만의 문학공간을 창출해나가는 여성적 자기서사의 특징을 주목한 바 있다. 또한 엘렌 식수는 남성들의 언어를 재전유하는 여성 언어의 전략적 측면을 주시하며 ‘여성적 글쓰기’를 명명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 사상적인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전통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여성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그 목소리들을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공론에서 배제된 여성들이 한편으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나갔다고 할 때, 기존의 텍스트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또한, 시대 구분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 가사의 경우 개화기로 통칭되는 시대적 특성이 일반적인 학계의 구분과는 달리 1919년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착안 그 대상을 훨씬 늘려 잡고 있는데, 본고 역시 그러한 여성 가사의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권영철에 이어서 서영숙, 전미경등의 경우 여성 가사의 전개양상에 따라 개화기를 갑오경장부터 일제시기까지로 설정하고 있다(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 72-74쪽; 서영숙,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 <식골 색씨 설은 타령>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4, 1985, 297쪽; 전미경, 『개화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시대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6권 1호, 2001, 88쪽).

당대 여성 향유자들 사이에서 ‘두루마리’, ‘휴지’로 일컬어졌던 여성 가사³⁾는 지배 양식인 남성 가사를 모방하는 것에서 여성들의 서사로 내면화, 융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시대 사회적인 변화를 담지하고 다른 문학 갈래와도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여성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독자성을 키워나갔다. 특히 낭독과 필사로 이어지는 향유 방식과 전승의 과정은 다기한 변이체들을 낳으며 고정된 텍스트 분석의 틀을 벗어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여성 텍스트의 외연을 넓혀주는 동시에 텍스트 자체의 다중적인 목소리들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여성가사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⁴⁾ 특히 계녀가류 여성

- 3) “내 어렸을 때 친외가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집안의 안노인끼리 한 방 가득 둘러앉아 계시는 풍경을 많이 보아왔다. 더러는 담소를 나누시는지 와르르 유쾌한 웃음을 방밖으로 내보내시기도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글을 짓거나 읽으시는 분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화제를 가진 공동작업을 하셨던 적이 많았다. (중략) 목청 좋으신 한 분이 두루마리를 펴들고 노래하듯 낭랑하게 읽으시면 다른 분들은 다리를 다소곳이 모든 자세로 경청하셨다. 또는 낡은 두루마리 한 필을 펴시고 필체 좋으신 분이 베끼시면 역시 걸엿분들이 읽어주듯 훈수를 넣으시고, 그 외의 분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셨다. 몇 시간이나 지루할 듯 계속되는 그 작업을 그 분들은 건디듯 곳곳한 자세로 즐기시는 것 같았고, 어린 나는 이내 싫증이 나 한 구석에 몸을 오그려 잠들곤 했다. 퍼뜩 잠 깨어 보면 밤이 매우 이슬하도록까지 안노인들은 그 작업에 몰두하시는 듯 했다. 헤어질 때쯤엔 손에 손에 한두필의 글들을 들고 가셨다.”(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서문, 박이정, 1999.) 인용문에서 대소사로 인해 모인 여성들의 ‘공동작업’으로서 ‘두루마리’는 곧 여성가사를 말하는 것으로 낭독과 필사로 이어지는 전승의 방식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글을 짓거나 읽는 한 분’을 중심으로 한 ‘낭독-경청’의 과정, ‘결’에서 ‘결’으로 이어지는 필사의 모습은 대상자들간에는 ‘곳곳한 자세’로 유지되는 진지한 교육인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존재했다. 또한 ‘낡은 두루마리’가 새로운 ‘한두필의 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내적 소통의 장으로, 여성 공감을 통한 문화적 향유의 측면까지를 담고 있는 여성가사는 바로 안채문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 특히 구술과 필사로 이어지는 전승의 방식은 경험적인 공감과 유대를 토대로 이어지는 여성적 자기진술 방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 4) 권영철(1979)에 따르면, 계녀 교훈류, 신변탄식류, 상사 호희류, 사친연모류, 풍류 소영류, 가문세덕류, 축원송도류, 제전애도류, 승지찬미류, 보은사덕류, 의인우화류, 노정기행류, 신앙권효류, 월령계절류, 노동서사류, 언어유희류, 소설내간류, 개

가사는 유교적 자장 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여성들의 관계적인 성향을 분명히 담지한 텍스트의 확장과 소통의 방식으로 인해 계녀가류 여성 가사는 조선시대 유교적 교육 지침서로서 때로 남성적인 윤리규범의 계도를 위한 방편이 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만들어냈다.⁵⁾ 특히 <경계사라>는 개화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지닌 계몽 담론의 자장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유교 질서 안에서 이상적 여성상을 구축해 온 계녀가가 바로 그러한 조선적 질서가 타파되어야 할 ‘구습(=악)’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어떠한 목소리로 어떤 지점에서 여성의 위치를 찾고 있는가의 문제는 구여성의 시대 대응 양상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계녀가류 여성가사인 <경계사라>를 개화계몽류 여성 가사인 <경세가>, 그 외 개화기의 시대인식이 드러난 다른 여성 가사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그 의미 지평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민으로 호명된 여성과 여성의 시대 읽기

조선이 근대로 넘어오는 첫 분절점인 개화기의 화두는 ‘개화’와 ‘계몽’이었다. 구체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이 시기, 서구 문명의 세례 속에 조선 사회 개혁을 모색하는 이 슬로건은 자주 독립과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바로 조선인은 국가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일원으로서 호명되었다. 이 지점에서 개화 지식인들은 계몽의 대상으

화계몽류, 번언영사류, 남요완상류, 기타 등 21개항으로 소장자료를 나누고 있다.
5) 일례로 <복선화음가>는 본래 조선 후기 가부장적 위계가 강화되는 한편으로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남성을 대신해 가정 경제의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었으나 경제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부각되면서 다양한 변이형을 낳으며 폭넓게 유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서 여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여성이 ‘가정간의 부인들’ 혹은 여자계로서 지칭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변화를 통해 조선사회의 개혁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구국의 일환으로 여성을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 규정지으려 했던 개화론자들은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성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데, 바로 ‘개혁하는 이 시대에 아무쪼록 공부하여 동등권을 회복하고 남자들과 병력하여 문명진보’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의 ‘시스평론’란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는 조선 왕조의 정치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이념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안과 밖,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분명했던 조선에서 여성은 철저히 가정 ‘안’의 존재로 남성과 달리 공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여성은 ‘공부’를 통해 ‘동등권을 회복’하고 남자들과 ‘병력’하여 ‘문명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로서 호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면모들은 개화계몽담론의 근거에 남녀동등론과 지식교육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담론적인 차원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여성상 구축을 위해 여성 교육이 중시되었다면 이전 시기 여성 교육의 의미와 변별되는 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우선 조선 시대 여성 지침서로 판단되는 초기 계녀가를 통해 유교질서 하에서의 여성 교육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히야	드러바라	넉일은	신행이라
친정을	하직하고	식가로	드러가니
네막음	어더하라	넉심스	갈발업다

(중략)

부모님	꾸중커든	업드려	감슈하고
아모리	올흐나마	발명은	밭비마라

발명을	빳비호면	도분만	나느니라
안식을	보아가며	노기가	풀리거든
조용히	나이안자	츄레로	발명호면
부모님네	우스시고	용서를	호시리라
	(중략)		
가장은	하늘이라	하늘갓치	중호여라
언어를	조심호고	스스이	공경호고
미답다고	방심말고	친타고	아당말라
음식을	먹더라고	흔반에	먹지말고
의복을	둘지라도	흔뵈에	걸지마라
넉외란	구별호여	힐난케	마라스라
저구난	금슈로디	갓가이	아니호고
연지논	남기로디	나지면	풀리나니
호물며	스람이야	분별이	업슬손가
	(중략)		
언어를	잘못호면	지친간	불화되니
그아니	두려우며	그아니	조심홀샤
일척포	갈나넉여	동괴와	갈나입고
일두속	갈나넉여	동괴와	갓치먹어
지친은	우익이라	우의업시	어이살리
무사이	이실씩는	남보듯	호거니와
급흔씩	당호오면	지친밧기	쏘잇는가
빈부를	혜지말고	영양이	제일이라
의복을	브렐져기	말없이	넉여주고
음식을	논홀져기	구무넉여	쥬지말라

-(권영철, 7-13쪽)⁶⁾

6) 이하 인용된 대부분의 텍스트는 권영철의 『규방가사』 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로, (권영철, 쪽수)로 표기하고 다른 텍스트일 경우 따로 부기하도록 한다.

가장 전형적인 계녀가로 볼 수 있는 권본 계녀가는 대체로 ‘서사-사우고-사군자-목친척-봉제사-접빈객-태교-육아-어노비-치산-출입-항심-결사’의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사와 결사를 빼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대체로 10개의 항목으로 생각될 수 있다. 서사에는 신행 보내는 어머니의 심회가 드러나 있다. ‘네 마음 어더흐랴 너심스 갈발업다’에서 딸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같은 입장에 놓여 있으며 ‘갈발업’은 심사에도 불구하고 경계의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교육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 이후에 이어지는 지침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언행에 관한 것인데, 시부모, 남편, 동기간의 평안과 가정의 질서를 위해 참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유교 질서는 엄격한 남녀의 역할 구분이 있었고,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교육은 집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고, 교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혼인은 자신이 성장해온 익숙한 세계와 단절하고,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었던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이었다. 여성의 시가 생활은 당대 여성의 역할을 평가받는 장이었으며 실제로 그 책임은 그 어머니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은 당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으며, 대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계녀가는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한 지침서였던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유포된 계녀서가 유교적 질서 확립을 위한 여성의 규율, 통제를 위한 목적에서 씌여졌다면, 사대부 양반을 중심으로 어머니가 신행가는 딸에게 지어준 초기 계녀가는 경험에서 우러난 자기 진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⁷⁾ 특히 딸이 시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책임

7) “여성의 자기 진술은 남성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말하는 동기가 다르고, 말하는 맥락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다. 말을 통하여 삶의 진실성이 전달되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이야기의 효과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자기 생애의 경험이 다르고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이 다른데서 기인한다.”(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15쪽)

을 어머니에게 물을 정도로 어머니와 딸은 운명 공동체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는 딸이 낯설은 시가에서 지켜야 할 유교적인 덕목들을 여성에게 가장 익숙한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문화적 차이가 경험의 차이를 낳고, 경험의 차이가 언술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⁸⁾ 엄격한 남녀 유별적인 내외 관습에 의해 형성된 안채 문화 속에서 계너가는 여성들의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내적 소통의 장으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적 긴밀성을 바탕으로 계너가는 실질적인 여성 교육 지침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부녀자의 시가생활에 초점을 둔 계너가에서 여성에게 강조되는 것은 희생과 인내를 통한 가정의 화목이다.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유교적인 질서 속에서도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분명히 인지하는 한편으로 여성적인 유대를 통한 대응 방안들을 구축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계너가가 여성 지침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면, 변화된 시대 흐름 속에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지침은 어떤 방식으로 내려지고 있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 바로 ‘을사원월’에 씌여진 것으로 명시된 <경계사라>이다.

이세상에	나온남녀	이가사를	읽어보라
무슨가사	지었난고	남녀으게	훈계사라
차흠다	남녀아해	이가사를	자세살혀
명심불망	긋기직혀	이대로	실행하라
	(중략)		
남녀를	막논하고	사람이면	사람인야

8) 신은경, 『조선조 여성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시고(1)』,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 논총』 2, 간행위원회, 1991, 572면.

사람도리	딱은후야	방가위지	사람이라
사람형용	가갓손니	사람이라	하것만은
사람도리	못하면은	금수와	다를손가
	(중략)		
남자녀자	동권이라	무엇을	지탄하라
행신범백	잘하면은	남자만	못할손야
선도자가	더해보자	모범인물	더해보새
부모임이	나으시서	남녀구분	별노업시
훈계교육	잘식히사	남에찬성	بات기한다

-<경계사라>(권영철, 72-77쪽)

작품의 서두인 “이 세상에 나온 남녀 이 가사를 읽어보라”에서 보이듯이 <경계사라>는 그 청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형 계녀가가 시집가는 딸을 청자로 시가에서 행해야 할 항목들을 담고 있다면, 변형 계녀가인 <경계사라>는 개화기의 새로운 남녀의 역할에 대한 훈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 훈계사’로서 이 작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람도리’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람 노릇’은 ‘남녀를 막논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금수’와 다를바가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반복하고 있다. 남녀를 같은 위치에서 다루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남녀를 동등하게 위치시키는 것으로 ‘남녀 동등’의 시대적 변화를 분명히 인지한 것이다. 변화된 세계 속에 여성을 ‘사람노릇’을 할 인격체로, ‘행신범백 잘하면은’ 남자와 같이 ‘선도자’, ‘모범인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는 교육면에서도 강조되는데 남녀구분없이 훈계교육을 잘 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화기에 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여성적인 자각을 통해 시대적 소임을 촉구하는 이러한 면모들은 개화기 다른 여성 가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차시에	원한바는	남자되기	바람이다
죽어남자	원하는데	살아서	남녀동등
엇지아니	좋은손고	절통타	나의몸은
시대따라	나는김에	십년전에	생겼던들
남만치야	못할소냐	내가조금	늦나거나
시대조금	당기거나	가네가네	이러하니
남다른	이내마음	시시로	창동된다
아서라	허다지설	쓸대없는	이런말이
심사만	울울하다		

-<기망가라>(권영철, 246쪽)

남녀유별의 원칙이 남존여비의 개념으로 변모되면서 조선의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여성의 탄식들 중에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개화기에는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상은 타파해야할 유습, 미개한 사상으로 인식되게 된다. 적어도 담론상으로는 남녀의 성별이 인격적 차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기망가라>에는 이러한 면모가 분명히 보이는데, ‘죽어남자 원하는데 살아서 남녀동등/ 엇지아니 좋은 손고’의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이 화자는 이러한 신세계를 본 것은 좋으나 그 세계속의 주역이 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자신을 탄하고 있다. 즉,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변화된 세계를 누릴 수 없는 우울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 여성은 더 이상 규방 ‘안’의 존재가 아닌 ‘밖’의 세계로 호출되고 있으며 여성들 역시 그러한 새로운 자리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모들은 개화계몽류의 여성 가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경세가>에서는 당시 계몽담론과 같은 논조로 변화된 세계 속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백일은	지지하고	녹음은	녹녹한데
청계상	벽장하에	초당에	깊은 잠을
세계풍조	깨워내서	미국의	독립사와
이테리의	건국전을	안상에	피여 놓고
세세낭독	하온 후에	조국강산	돌아보니
통곡할일	더욱 많다		

(중략)

수구당이	죄책이라	어화일국에	남녀노소
수구악습	다든지고	노예성질	벗어부고
민주주의	연구하세	일국에	남녀노소
일심으로	단체하야	우리나라	찾은 후에
우리한번	살아보세	자위신모	하지말고
애국사상	진작하야	세계일층	무대상에
우리한번	놀아보세		

-<경세가>(권영철, 623-624쪽)

<경세가>의 서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조선 역사를 ‘깊은 잠’으로 묘사하며 세계 풍조 속에 ‘깨어나는’ 조선의 모습이다. 미국 독립사, 이테리 건국전은 주권상실로 인한 ‘무국 신민’이 되어버린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으로 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직/간접적인 경험은 새로운 인식들에 대한 촉구로 이어진다. 이는 ‘개화/수구’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논리화하는 계몽담론과 같은 궤에 놓이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수구당에게 그런 책임을 물으면서 ‘남녀노소’를 모두 조선의 주체로서 호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남녀노소는 모두 ‘국민’으로 거듭나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 ‘수구악습’을 다 버리고 ‘노예성질’을 벗어버리고 ‘민주주의’를 연구하고 ‘애국사상’을 고취할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남녀 동등권에 바탕한 여성의 호명은 교육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과거의 유교 윤리는 비난의 표적이 된다.

계중에	우심한 것	부인압제	무삼일고
삼중지위	있다한들	압제하란	말일런가
칠거지악	있다한들	구박하란	경우런가
남여유별	할아한들	불출문외	하란말가
방직적임	뿐이로다	평생사읍	무엇인고
쥬식시의	뿐이로다	평생사읍	무엇인고
목불시정	하게하여	통고금	못했은이
지식인들	정대하며	규중에	진역살이
새계유람	못했으니	견문인들	있을손야
지각견문	우메하니	자녀교육	올케하리
우리나라	부인대접	이건사에	불과한이
경낙간풍	유남자	동방회촉	좋은곳에
화초와	함께보고	향곡간	살임살이
정구지임	당착시켜	노복과	같이한다
가련하오	가련하오	부인신세	가련하오
선경현전	좋은책과	정치학	이화학을
눈이있어	못보나니	소경이	안일른가
육대주	오대양에	오색인종	경쟁사읍
귀가있어	못들은이	귀머거리	분명하며
문명한	신풍기를	입이있어	말못한이
병어리가	분명하다	이목구비	성큰만은
무단이	병신이라	이천만	우리동포
부인이	일천만에	일천만	병신된이
망국지초	이야닌가	개명못해	망한나라

조선 시대의 남녀 윤리란 근본적으로는 음양론에 근거한 상대적이고 동등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조선 사회가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게 되면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로서 열등한 존재로 비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남녀관이 개화기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척결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였다.

삼종지위, 칠거지악, 남녀유별의 유교 윤리는 결국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삶을 규방 안으로 몰아넣었음을 규탄한다. 규중살이를 ‘징역살이’로 단정하며 세계를 보지 못하였으니 지식 견문이 좁고, 이러한 지식으로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논설한다. 또한 여성의 독서를 금하고 ‘밖’의 세계에 눈감도록 하여 여성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은 조선의 정책은 여성을 병신으로 만든 것으로 ‘이천만 우리 동포’의 반에 해당하는 조선인이 모두 병신이 되었으니 이는 ‘망국지초’라는 것이다. 조선의 규범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비난하는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여성이 ‘우리 동포’의 반을 구성하는 주체로 국가 흥망을 관여할 수 있는 위치로서 호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문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로 남녀 동등권을 주지시킨 후에는 여성의 자각을 촉구한다.

		세상에	부인들네
이네말삼	들어보소	부인역시	사람이라
남자와	다름업소	병신이를	면하고서
옳은사람	되어보세	남자압제	밧지말고
실심으로	교육하야	중학교	대학교를
제조되로	졸업하야	외국에	유학하고
견문을	확충하며	우치소걸	자연없고
애국사상	절로나네	사회참여	능히하고
정치사읍	못할손가		

여성은 남자와 다름없는 인격체이므로 남자에게 ‘압제’를 받지말고 동등하게 교육을 통해 애국 사상할 수 있는 ‘옳은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상의 부인들네’라는 호명은 이제껏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여성들을 자각시키고 근대적인 교육을 받을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이제 교육은 ‘병신’을 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근대 교육의 일단이 중학교, 대학교, 유학에 이르기까지 구체화 될 뿐 아니라 여성 역시 그러한 공적 교육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집 ‘안’에서 교육되고 제도권적인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조선의 여성을 ‘밖’으로 호출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일분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지점에서 여성은 호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화기 여성가사에서 여성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화계몽류의 여성가사에서 여성은 보다 직접적으로 세계사적 조류에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국민으로 호명되고 있다. 시대적 변화 속에서 여성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새로운 여성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면, 본래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녀가류 여성가사의 위치는 문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서 <경계사라>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점은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여성 교육의 의미와는 별도로 혹은 실질적으로는 그 자장으로 포섭될 수 없었던 여성들이 변화된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제 위치를 찾으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는 기제가 될 수 있다.

3. 전통(가족)과 근대(국가)의 경계에 선 여성의 위치 찾기

조동일에 따르면 개화기 문학에 나타난 외세에의 대응 태도는 ‘개화-

주체적 개화-반개화⁹⁾로 크게 구별되는데, 이 시기에 창작 전승된 여성 가사들 중에 전통 회복의 측면을 내재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화계몽 담론 속에 전통은 봉건적인 유습을 지닌 '악'으로 인식되던 이 시기에 여성가사에서 이러한 면모가 나타난 것은 도시 개화 문물의 유입으로 전통적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이 위협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위치를 위협받는 여성의 정체성 모색의 과정으로 생각된다. 앞 장에서 개화기 여성의 시대 인식과 자각의 면모를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의식 변화의 측면 혹은 시대 담론의 측면에서 고찰해야될 것인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성의 대다수는 여전히 유교적인 자장하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시골의 전통 가정에서 도시 문물의 유입은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전통 가정에 속한 여성의 심리적 괴리감이 당시 신여성으로 지칭되는 개화한 여성에 의해 예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학 간 남편의 이혼 요청, 계명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의 표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조화를 통해 여성의 '사람노릇'을 강조하는 특성이 표출되고 있다. 이 시기 전통과 근대가 대립지점에 놓여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두 지점 모두, 혹은 그 사이에서 있는 여성의 정체성 모색 과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꿈인양	참인양	청천벽력	나리는듯
이혼이란	무슨변고	이혼이란	무슨일고
시집온후	칠팔년간	한해두해	허다세월
쓰나다나	한말없이	누를위해	기다렸소
춘풍도리	꽃필때와	추우음풍	있질때에
눈물로	벗을삼아	아픈기슴	씻어왔네

9) 조동일, 『개화 구국기의 애국시가』, 임형택·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135-173쪽.

어서어서	세월가서	삼년이란	세월가면
우리집	졸업맞고	따순가정	하렷더니
내가슴에	그리던꿈	아침풀에	이슬내고
오월비상	연화꽃의	이원일고	

-<식골색씨 설은타령>(권영철, 114쪽)

이 작품은 시골의 전통적인 가정에 있는 여성에게 문명 개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조혼한 여성으로 보이는 화자는 남편을 도시로 보내고 낮설은 시댁 생활도 오직 남편이 돌아와 단란한 가정을 이를 생각만으로 견뎌낸다. 그런데 남편은 ‘청천벽력’의 ‘이혼’을 요청한다. 이는 조혼 역시 미개한 관습으로 여겨지던 당시 상황 속에서 신여성과의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남편이 몰고 온 문명개화의 면면들이다. 남편의 이런 행동에 화자는 ‘눈물’로서 응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완고한 시댁에서의 시집살이가 한층 괴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도어려 남과같이 학교가여 배웠으면’하는 실현불가능한 생각에 ‘감옥갓흔 도장속이 김히김히 갖치여서 죄엄는 죄인노릇 자나깨나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순박한 시골 여성조차 전통적인 가정 안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감옥’으로, 자신을 ‘죄없는 죄인’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사람노릇’ 못한 처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시기 여성의 자의식과 현실적인 괴리의 국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생조감구가>에서는 이러한 신여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면서도 자신의 현재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오백년	나린법을	인면슈심	아니거든
불성이부	먹은마음	송빅갓치	구더스니
남의전정	아니해고	기명문명	자랑말고
시세를	보드라도	신구식을	조종하여

지하면서도 전통적인 여성관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지무궁	한탄한들	쓸때없고	허사로다
이것저것	다바리고	사람노릇	하여보자
부모공양	극진하고	봉제사	접빈객을
칭가유무	성심하고	생남생녀	교육하여
여자의무	다하여서	구불절성	찬성듯자
아무려나	행신잘해	어진인물	되어보자

-(권영철, 78쪽)

남녀 앞에 ‘사람’을 놓으면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계사라>에서 새로운 시대에 부여된 여성의 임무는 구여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개화기’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그러나 엇지 하랴 옛 법을 바릴손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문호와 친정을 빗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것을 말하는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쓸 때없는 한탄과 허황된 생각 대신 여성적 덕목으로 행신을 잘해 ‘어진 인물’이 될 것을 제시한다. ‘봉제사접빈객’, ‘부모공양’, ‘자녀양육’과 같은 삼종지도의 도리는 신교육의 세례를 받지 못할 지라도 바람직한 ‘행신범백’을 통해 ‘선도자’로서 모범인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면모들은 내용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경계사라>가 변화된 시대 속에서 여성의 새 역할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경계사라>의 자녀 양육의 문제는 <경세가>에서 여성에게 문명의 세례를 강조하는 것이 이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키워내는 어머니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부각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나아가 개화기 여성 교육이 애국사상과 연결되고 그 핵심에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호명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경계사라>의 이러한 면모들은 개

화계몽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전통적인 여성 덕목과의 조화를 통해 선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녀가로서의 면모를 담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말미에서 ‘이가사 보난아해 자자이 명심하여// 헛말노 듯지말고 어김업시 실행하라’는 면면에서도 볼 수 있다.

4. 결론

여성 가사는 개화기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여성의 소임과 시대인식을 강조하면서도 (경험적 자아로서의)여성의 실존에 근거하고 있기에 전통과 근대를 대척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여성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 가사에서 드러난 ‘사람됨’의 자각은 같은 시기 남성 가사에서 보여지는 완고한 의식들과 대별되는 것이며, 이른바 서구 문명의 세례를 통해서 각성된 신여성들의 여성적 자의식과도 구별되는 내발적인 움직임이다. 이는 한국적 안채 문화가 지닌 여성적 유대의 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적 의식의 내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여성적 자기 서사의 구현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조선적 윤리의식을 계도하였던 계녀가류 여성 가사의 시대인식의 면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경계사라>는 조선적 윤리의식을 계도하는 계녀가류 여성 가사가 개화기라는 시대적 변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문명 개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으면서 그 중심에 여성을 둔 개화기 담론 속에서 여성은 계몽의 대상이었으며 쏟아지는 여성 담론들은 또 하나의 여성 지침서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적 자장 하에서 <경계사라>는, 대한 매일 신보의 ‘시스평론’란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계몽의 목소리와 이러한 목소리들을 그대로 반영한 <경세가>등의 가사와 비교할 때 그 다층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시/ 남성’으로부터 소외된 ‘시골/ 여성’의 내적 욕구를 분출시킨 <식골 색시 설은 타령>, <생조감구가> 등은 ‘신/ 구’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대별하는 계몽 담론에 비판적인 준거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 가사들을 통해 볼 때 이 시기 여성의 자각은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실제 여성의 삶은 급격히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여성들은 전통과 근대의 경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점들을 <경계사라>와 다른 여성가사들을 통해 방증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여성 가사들이 보여주는 여성수난과 극복의 서사들은 신소설의 면면들, 이후 근대 여성 소설의 면면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이는 차후의 과제로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권영철 외,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 강명관 · 고미숙편, 『근대계몽기시가자료집』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이우출판사, 1980, 72-74쪽.
- 고순희, 「개화기 가사를 통해 본 여성담론의 전개양상과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5, 201-229쪽.
-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15쪽.
- 김수진, 「신여성 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영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2006, 188쪽.
- 나정순, 「내방가사의 문학성과 여성인식」, 『고전문학연구』 10, 1995, 273-298쪽.

- 노규호, 『조선후기 교본성 가사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6.
- 박연호, 『조선후기 교훈 가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9-67쪽.
- 서영숙,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서술구조와 의미: <김씨계녀사>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213-236쪽.
- 서영숙, 『한국 여성 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1-16쪽.
-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 송재연, 『계녀가사의 구성양상과 서술 특성』,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은경, 『조선조 여성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시고(1)』, 『석정 이승 옥선생 회갑기념논총』 2, 1991, 572쪽.
- 양지혜,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선애, 『<복선화음가>연구』, 『여성문제연구』 제11집, 효성여대, 1980, 183-214쪽.
- 이정옥,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교육관』, 『여성문제연구』 18, 1990, 231-250쪽.
-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연구』 서문, 박이정, 1999, 11-50쪽.
- 이재수, 『규방가사 연구』, 형설출판사, 1976.
- 장덕순, 『계녀가사 시론』, 『국어국문학』 3, 1953, 10-12쪽.
- 전미경, 『개화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시대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제6권1호, 2001, 85-108쪽.
- 조동일, 『개화 구국기의 애국시가』, 임형택 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135-173쪽.
- 조선영, 『가사문학과 유학 사상』, 태학사, 2002.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4.
- 최숙경·하현강, 『한국 여성사: 고대~조선시대』, 이화여대출판부, 1993.

리타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동녘, 1997.

Elizabeth D. Harvey. *Ventriloquized voice: Feminist Theory and English Renaissance Texts*, London: Routledge. 1995.

Abstract

On Female Consciousness Shown in *Yösöng Gasa* in the Period of Enlightenment

Choi Jung-a

Yösöng Gasa includes diverse female voices from the Confucian society. *Yösöng Gasa* advocates for the masculine rule in general; however female writers sometimes express their own voices. Readers need to discern how female voices are expressed differently from male voices and how female voices are spoken in their own way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 focus on the work called *Köngke-sara* written in the age of enlightenment. This transitional period has a task of modernization (namely Westernization) and recognizes the changing female status. Women should be educated and enlightened according to the changed social atmosphere. However, although women began to acknowledge this atmospher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their inferior social position let them unable to transform the social system.

Women posit themselves between the tradition and the modern and reveal their confusions and complexities as floating subjects, which uncovers in my close reading of *Köngkae-sara*. Women's attempts to set up female identity begin to show up in *Kyöngkae-sara* and followed by new novels (*shinsosöl*) that describe the changed female identity.

Key words : *Yösŏng Gasa*, female voices, complexity, *Kŏngkae-sara*, female identity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